

10 인터뷰-최승지 동문(유엔세계식량계획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정치외교학 2014)

“일상적인 순간 마주할 때 가장 보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

이자수 기자 ssu1404@khu.ac.kr

“왠지 모르게 거기(네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 필드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민폐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돋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일 것이다.

최승지 동문(정치외교학 2014)은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네팔행을 결정했던 아마추어의 패기는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한 계기가 됐다.

최 동문은 국제 NGO 단체인 ‘피스보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네팔 사무소를 거쳐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에서 정보 관리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WFP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현지 출장을 나가 도움이 필요한 구호민을 마주하기도 한다. 무엇이 그녀를 가장 열악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일까.

배낭여행 도중 ‘네팔 대지진’ 소식 접해 현지에서 봉사하며 키운 꿈

정경대학 도서관을 오가며 밤늦게 공부하곤 했던 최 동문은 이른바 ‘범생이’에 가까운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1학년을 마치고 떠난 배낭여행이 최 동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배낭여행 중 2015년 네팔 대지진 소식을 듣고 무작정 ‘돕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는 네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최 동문은 이미 NGO 단체를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교가 무너지고 누군가 목숨을 잃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마을에 있었어요. 배급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너무 친해졌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저한테 꽃을 따서 주거나 초콜릿을 가져다주더라고요. 근데 초콜릿을 받아보면 하루종일 손에 쥐고 다녀서 모서리가 다 녹아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



최 동문(가운데 사진 우측 첫 번째)은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진=최승지 동문 제공)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최 동문은 네팔 구호 활동 기간 중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국제기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팔의 아이들이었다. “현지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을 피사체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뷔파인더로 아이들을 보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 아이들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아마추어 대학생, WFP 직원으로 다시 네팔에 돌아가다

대학에 돌아온 이후에도 최 동문은 네팔에서의 경험을 떨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던가. 학생 신분으로 참여한 NGO 단체 피스보트에서 최 동문은 우연히 전 WFP 아시아 사무소장을 만나 식량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어찌다 보니 피스보트에서 2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했고 이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석사를 취득했어요. WFP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졸업 말미에 결국 네팔 사무소로 가게 된 거예요.”

21살 아마추어 봉사자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WFP 전문가로 네팔에 돌아왔을 때는 보이기 시작했다. “식량 지원을 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 카스트

시스템도 남아있고,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고질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들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팔에서 근무했을 때는 되레 아쉬움도 느끼고 이 일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람차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의 끝은 결국 자신이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었다. 최 동문은 “WFP의 방향과 목적성은 아무래도 가장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세이프티 넷(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당장에 이 사람들이 발전을 이루지 못해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서야 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가치가 있음을

네팔 포지션에서의 근무를 끝내고 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가장 열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택했다. 그녀가 선택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 식량안보 순위 체계에서 기근 전 마지막 단계인 ‘파국적(catastrophic)’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다.

2021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식량 위기도 문제였지만, 여성 인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때문에 최 동문의 일터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에 탈레반이 여성 직원들의 근무를 못 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여성 수혜자들한테 가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선 여성 직원이 필요해요. 아프가니스탄은 남성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암박감을 견디면서 일주일에 하루 겨우 나오고 눈치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최 동문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말을 전했다.

최 동문은 너무 거창한 것들이 자신에게 동기를 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현지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밥을 먹는 모습같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순간을 이곳에서 마주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을 유엔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톱니바퀴 하나라고 칭하는 최 동문은 충실히 일 잘하는 톱니바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가치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